

서호인의 '소설처럼'



여태 흠뻑러지는 빛 - 은희경 '빛의 과거'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니얼 퍼거슨의 대표적 저서 '중세의 세기는 20세기를 지배한 두 전쟁(1·2차 세계대전)'을 심도 있게 다룬다. 그가 전쟁의 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논문, 통계, 사진 자료 같은 것이 아니다. 2차세계대전에 비해 남겨진 자료가 취약한 1차 세계대전에서의 니얼 퍼거슨이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데 쓴 주요한 자료는 놀랍게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이다. 그는 소설 속 인물들 사이의 대화, 소설에서 묘사된 전쟁터의 상황 등을 토대로 증으로 얼룩진 100년의 성급한 시작으로서의 1차 세계대전을 논이한다.

소설은 시대의 거울이 된다는 철 지난 비유를 들먹거리려는 건 아니다. 차라리 그 말이 비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어떤 소설은 시대의 거울이 아닌, 시대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과 선택, 그 인물을 둘러싼 배경은 한 시대를 기억하는 사료가 된다. 1977년 여자

대학교의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은희경의 신작 장편소설, '빛의 과거'가 바로 그렇다. 1977년은 군사독재의 서슬이 간강조치라는 이름으로 발동되던 때다. 학교 축제에서 고등학교생들은 선생의 구령과 협박에 맞춰 카드섹션을 연습하고 대학에는 학도호국단이 존재하던 시대다.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논평 및 줄로 끝난 기억을 다시 들추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시대 그 자체가 존재하길 원하는 소설은 시대가 시대가길 원하는 방식의 반대로 몸을 움직인다. '빛의 과거'는 진실을 확정시키지 않고 각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고 말하는 인물들을 병렬시켜 진실을 혼돈다.

우리는 소설을 통해 시대를 읽어 내는 것을 넘어, 그 시간을 의심하게 된다. 그의 의심은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의 시간까지도 이어진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김희진으로 사는가, 송선미로 사는가, 혹은 소설의 인물 빛을 섞어 놓은 것처럼 사는

가. 그 삶의 조각조각이 결국 시대를 이루는 삶과 피는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은 매우 합리적이다.

소설은 1970년대 말의 세피아빛 공기를 녹록하게 내리깔면서도 인물 각자가 가진 고유한 매력을 과감하게 드러낸다. 그들의 사정과 취향과 동선에 따라 나타나는 당시의 풍속은 세밀하게 그려졌다. 순진무구하지도, 선하지도, 악랄하지도 않은 인물들은 그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시대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아간다.

소설에서의 종착지는 2017년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2019년이다. 그만큼의 시간을 소설을 통해 길게 달았다가 어렵게 떨어진다. 그 시절의 뉴스 한 줄, 영상 한 컷이 답을 수 없는 사람을 다뤄 그것을 시대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킨다. 뉴스의 주변부, 영상의 바깥에 서 있던 여성에게 '빛의 과거'는 일정한 몫을 준다. 과거의 빛을 길게 늘어뜨려, 지금에 와 비춘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일이 없다. 빛은

굴절되고 반사되며 그 나름의 형태를 갖춰 우리 눈에 들어온다. 빛을 빛으로 보기 위해 눈을 치켜뜨면 안구의 건강이 해로워질 뿐이다. 그러니까 소설은 빛을 끌어모아 여기저기에 흠뻑러는 것이다. 따지자니 소설은 시대의 거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 거울은 아마도 당장의 아름다움이 아닌 그 안의 감춰진 것들을 꺼발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기억이 그렇다. 기억은 진실을 담보하는가. 기억을 끝내 손에 쥐고 가늠하려는 인물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1977년의 여자대학교 기숙사는 2019년의 광장과 밀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소설은 그드머리에 이르러 타인의 문장을 인용하는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진실이 어디 있어. 각자의 기억은 그 사람의 사적인 문학이란 말 못 들어봤니?"

"오래전의 유성우로 지금 존재하는 커다란 호수를 설명할 수 있다."

의료칼럼

내비게이션 수술



문영래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장

능해진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 어깨 관절 치환술의 과정을 살펴보면 내비게이션 수술의 원리와 유용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됐다. 관절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의 통증이다. 어깨 관절은 외상을 입거나 오랜 시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절염이 발생하게 된다.

관절염이나 골종양 등으로 인해 관절 부의 뼈가 파괴되거나 관절 손상을 입어 관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관절을 절제하고 이를 대신할 인공 관절을 삽입한다. 이러한 수술을 인공 관절 치환술이라고 한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어깨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어깨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의 기준과 증

상은 거의 동일하다. 숙달된 수술자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필요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골절이나 재치환술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아닌 경우, 숙달된 수술자들도 수술 중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환자의 CT스캔을 통해 얻은 영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3차원 영상(Virtual Mock-Up)을 토대로 수술 전에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다. 수술 중에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내비게이션 수술의 기본 원리는 센서와 수술 기구를 수술 대상인 관절에 동시에 장착, 손상된 부위와 정상일 경우의 값을 육안과 컴퓨터가 정확하게 제공하는 좌표 값을 함께 확인하면서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인공 어깨 관절 치환술에서 내비게이션의 사용은 내비게이션이 수술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정보(intraoperative information)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고정 핀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개를 필요로 하고, 고정 부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 관절 주위의 자연 감염이나 활동성 감염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수술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

수술 시간 및 비용의 증가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수술자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컴퓨터 관련 장애, 표식자 이완(tracker loosening)으로 인한 내비게이션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 후유증 없는 수술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는 물론 장기적 추적·관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에게 거주장스러운 때가 있는 반면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가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술에서 내비게이션의 사용은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社說

'외유성 연수' 유혹 떨치기 그리도 어렵나

광주 기초의회 일부 구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는 등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 의회 구의원들로 꾸러진 국외연수단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수 목적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점검과 청년 일자리, 도시 재생 분야 등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수에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 등 16명이 참여한다. 경비는 1인당 250만 원부터 285만 원까지 총 4093만 원이다. 연수 일정에는 '전국 시도별 어음 부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도율은 전국 평균 0.13%로 대체로 안정된 상태지만 광주 지역은 0.99%로 전국 평균의 7배를 웃돌았다. 이 같은 부도율은 지역 내 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총생산은 37조 7000억 원으로 세종과 제주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출금 연체율은 광주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장병관 의원(대안정치연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율은 광주가 0.42%로 전국

도시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에 1인당 출장비 198만 원씩을 지급했다. 구청은 2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출장은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의원들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다녀왔다. 광주 북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도 지난달 26~27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대부분 관광성 일정에만 소화해 허위 출장 논란을 빚었다.

기초·광역의회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나 출장은 지방자치 출범 이래 술하게 지적돼 온 적폐다. 민의 대변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소홀한 채 형세를 남비하는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급지 않다. 아무리 관행이라 해도 뒷맛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기초의원들이 특권의 식에 젖어 특혜를 누리는 한심한 외유를 계속할 것인가. 공복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태는 결국 성난 표심으로 돌아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도·폐업 전국 최고 '광주 경제' 심각하다

광주 지역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과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8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광주 경제가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열 의원(대안정치연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시도별 어음 부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도율은 전국 평균 0.13%로 대체로 안정된 상태지만 광주 지역은 0.99%로 전국 평균의 7배를 웃돌았다. 이 같은 부도율은 지역 내 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총생산은 37조 7000억 원으로 세종과 제주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출금 연체율도 광주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장병관 의원(대안정치연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율은 광주가 0.42%로 전국

평균 0.3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광주 지역의 기업 연체율은 0.5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업 환경을 보여 주는 자영업자 폐업을 역시 광주가 지난 2011년 이래 8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김경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개인 자영업자 폐업률은 12.2%로 울산과 함께 가장 높았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가동 사업자 16만7230명 가운데 2만3313명이 폐업했다.

광주 지역 어음 부도율과 대출금 연체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기업들의 자금 사정고 경영 환경이 그만큼 악화된 탓이다. 특히 자영업자 폐업률과 어음 부도율이 수년째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은 광주의 경제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기고

조국 사태로 보는 한국의 붕당(朋黨) 정치



고광만 호남역사문화연구소 상임대표

다. 김호원과 뜻을 같이 한동인은 신진 사람의 관료들이었고, 심의경과 뜻을 같이 한 서인은 원로 사람의 관료들이었다. 이때 사람의 동서분당은 후에 사색당쟁(사색黨爭)으로 발전해 동은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국력을 크게 소모시켰다.

동인은 주로 영남 세력으로 퇴계 이황의 사상을 따랐고, 서인은 주로 기호 세력으로 율곡 이이의 사상을 지지했다.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인조 반정 후에는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여기에 남인들이 도전했다. 이후 몇 차례 바뀌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서인이, 그 중에서도 강경파인 노론이 주도권을 잡았다. 붕당은 관직의 높고 낮음이나 속해 있는 관청과는 상관없고, 주로 정치적 입장이나 학맥에 따라 갈렸다.

훈구 세력에 의해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사회를 겪었던 사람의 붕당 정치는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붕당의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육사로 전개되기도 했다. 조선의 몇몇 임금들은 왕권

을 강화하기 위해 붕당 정치를 이용하기도 했다. 제19대 임금인 숙종은 붕당을 번갈아가며 몰아내는 환국 정치(換國政治)를 펼쳤는데, 이로 인해 붕당 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영조와 정조 때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붕당에 관계없이 두루두루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펴기도 했지만 붕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의 이러한 당쟁의 폐단이 있을 때 우리를 침략하였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붕당을 조선의 특징이자 망국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다. 나라의 이익보다 자기 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단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방 후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신익희, 조병옥 선생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게 되었다. 그 후 자유당은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 흡사 조선의 동인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윤보선, 장면의 민주당에

서 신민당, 민주한국당,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져 서인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다.

위기 뒤에 찬스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했다. 외양간이 허술해 전 재산이 다 타들었다는 아까운 소를 잃으면 즉시 반면교사로 삼고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좌파 우파를 떠나 국론을 통합하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감·경 수사권 조정 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에게 무시 받지 않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란다. 그 기대를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으로 만들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호국충절의 정신이고,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가 염원했던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無等鼓

초등학교 시절 신문사를 방문해 아저씨들이 활자 뽑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원고 한 장씩을 손에 들고 빠른 손놀림으로 필요한 글자를 뽑아내는 게 딱 신기했다. 다음 날 배달돼 온 신문을 보면서는 이전과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됐다. 어제 본 낱말자들이 종이에 찍혀 어떤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었으니까.

2017년부터 진행되는 '오월 안부 프로젝트'는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 '광주 상징' 이미지가 실린 엽서를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국내외 어디든 보내주는 기획이 다. 처음 엽서를 받았을 때 사정 그림과 함께 독특한 글씨체가 인상적이었다. 기획자들이 파주 활판 공장을 찾아가 직접 활자를 골라 찍어 낸 글씨체였다. 컴퓨터로 글을 쓰고 프린터를 통해 뽑아내는 시대에 활자가 주는 매력은 유별나다.

최근 다큐 '캘리포니아 타이프 라이터'를 관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증고 타자기 가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를 통해 오랜만에 '타자기 소리'를 들었다. 글자가 한 자 한 자 종이에 찍힐 때마다 나는 '탁탁' 소리와 줄바꿈을 할 때 나는 '종소리'

등을 들으며 새삼 옛 생각이 젖었다. 영화 속에 타자기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매일 타자기를 치고 수백 대의 타자기를 수집한 영화배우 톰 행크스, 타자기로 연주하는 4중주단, 낡은 증고 타자기 부품으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 등. 타자기는 1867년에 크리스토퍼 래섬 솔스가 발명했다. 현재 서울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글 타자 전성시대' 전(2월2일까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전국에 타자수가 7만 명, 학원도 서울에 만 51곳이 있었는데, 기념경시대회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한다.

영화를 본 후 직접 타자기 소리를 듣거나 타자기를 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로의 귀환'을 꿈꾸며 다시 타자기 붐이 일고 있다는데 광주에선 카페 인테리어 물품으로 사용되는 정도였다.

마침 송재영(타자재이) 씨가 사람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타이핑으로 쳐 문장으로 기록해 주는 '타자기 버스킹' 행사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오랜만에 추억 속으로 빠져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 創刊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p> <p>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p> <p>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p> <p>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p> <p>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p> <p>전남본부 220-0642</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p> <p>FAX 222-8005 (FAX 220-0195)</p> <p>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p> <p>(FAX 222-0195) (FAX 222-0195)</p> <p>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p> <p>(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